

제 103 회

한자실력급수 자격시험

(문제지)

※ 정답은 별도 배부한 OCR답안지에 작성함

급수	사범급	유형	A형	수험번호		-		-		-		
문항수	200	객	50	성명								
		주	150									
시험시간	120분											

수험생 유의 사항

- 수험표에 표기된 응시급수와 문제지의 급수가 같은지 확인하십시오.
- 답안지에 문제유형(A, B)를 <예시>와 같이 표기하십시오.
- 답안지에 성명, 수험번호,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감독관의 설명을 들은 후 문제를 풀기 시작하십시오.
- 답안지의 주·객관식 답안란에는 검정색 펜을 사용하십시오.
- 답안지의 수정방법:
 - 객관식 답안의 수정은 수정테이프 만을 사용하십시오.
 - 주관식 답안의 수정은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십시오.
- 주관식은 임의로 간자나 약자를 기입할 경우 오답으로 처리되니 반드시 정자로 정서하여 기입하십시오.
- 주관식Ⅰ은 OCR답안지에, 주관식Ⅱ는 별도의 주관식Ⅱ답안지에 작성하십시오.
- 문항번호에 맞지 않게 기재한 답은 오답으로 처리되니 문항번호와 답안지의 번호(객관식과 주관식 구분)를 잘 확인하여 답안을 작성하십시오.
- 수험생의 잘못으로 인해 답안지에 이물질이 묻거나, 객관식 답안을 복수로 표기할 경우 오답으로 처리되니 답안지를 구기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지 마십시오.
- 시험 시간이 종료되면 필기를 멈추고 감독관의 안내에 따르십시오.
- 시험 시간 중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조작하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예시>

문제유형	
A형	●
B형	○

■ 이 문제지는 응시자가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공인민간자격관리 · 운영기관


 社團 漢字教育振興會
 法人

韓國漢字實力評價院

제103회 한자실력급수 [사범급] 문제지

객관식 (1~50번)

※ [] 안의 한자와 음이 같은 한자는?

1. [蔦] ① 體 ② 毅 ③ 諱 ④ 魏
2. [听] ① 崑 ② 斫 ③ 忻 ④ 痕
3. [儼] ① 闌 ② 鸞 ③ 拿 ④ 勲
4. [蠱] ① 拐 ② 餠 ③ 圪 ④ 壺
5. [喙] ① 噫 ② 卉 ③ 蚩 ④ 鷺

※ [] 안의 한자와 음이 다른 한자는?

6. [招] ① 塑 ② 軺 ③ 簫 ④ 嘯
7. [瘞] ① 靄 ② 嘸 ③ 裔 ④ 翳
8. [勾] ① 廐 ② 瞿 ③ 璆 ④ 珩
9. [脣] ① 瘳 ② 檣 ③ 雛 ④ 諷

※ [] 안의 한자와 뜻이 비슷하거나 같은 한자는?

10. [鈿] ① 鈇 ② 鈇 ③ 鋤 ④ 鈔
11. [渚] ① 溜 ② 涇 ③ 瀉 ④ 汀
12. [璫] ① 玼 ② 瑣 ③ 瑪 ④ 玞
13. [蚣] ① 蜈 ② 蝸 ③ 蛛 ④ 蛔

※ 나머지 셋과 부수가 다른 한자는?

14. ① 蒜 ② 蔑 ③ 菜 ④ 摹
15. ① 曩 ② 曼 ③ 替 ④ 最

※ 다음 중 한자어의 독음이 바르지 않은 것은?

16. ① 棗脩 : 조숙 ② 山野 : 산서
③ 彌勒 : 미륵 ④ 梔子 : 치자
17. ① 纏綿 : 전면 ② 標幟 : 표치
③ 顧眄 : 고면 ④ 梭田 : 준전
18. ① 粗雜 : 조잡 ② 鑊烹 : 확평
③ 富贍 : 부담 ④ 咀嚼 : 저작
19. ① 媾近 : 설근 ② 淮尉 : 준위
③ 聲嘶 : 성사 ④ 薨去 : 흥거
20. ① 旗幡 : 기번 ② 綴音 : 철음
③ 侏儒 : 수유 ④ 瓦葺 : 와즘

※ [] 안의 한자어를 바르게 표기한 것은?

21. 그 요새는 김 장군의 [휘하] 부대에 의해 굳건히 사수되었다.
① 糜下 ② 靡下 ③ 揮下 ④ 扈下
22. 어민들은 [녹조류]로 인해 조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① 綠漕類 ② 綠藻瘤 ③ 綠藻類 ④ 綠漕瘤
23. 모유는 필수 아미노산과 같은 [단백질]의 함량이 높다.
① 象百質 ② 蛋白質 ③ 象白質 ④ 蛋百質
24. 우리는 싱싱한 굴을 [초장]에 찍어 먹었다.
① 醯醬 ② 醋漿 ③ 醯漿 ④ 醋醬
25. 강독 위로 날아가는 [방패연]을 따라 한 무리의 아이들이 내닫고 있었다.
① 防牌鳶 ② 榜牌椽 ③ 榜牌鳶 ④ 防牌椽
26. 그의 서한은 ‘[계상]재배’로 시작되었다.
① 屆類 ② 稽觴 ③ 屆觴 ④ 稽類
27. 그녀는 창가에 [준거]하여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① 皴裾 ② 蹲踞 ③ 皴踞 ④ 蹲裾

※ [] 안에 들어갈 한자로 알맞은 것은?

28. 그는 왕위 []음모에 관련되어 유배되었다.
① 凶歉 ② 廓然 ③ 篡奪 ④ 嵇康
29. 현대 사회의 과소비 성향은 향락과 []을/를 부추기는 성향이 있다.
① 頹廢 ② 銜能 ③ 含漱 ④ 疲斃
30. 아침 일찍 병원에서 []하고 고인의 집에 들러서 노제를 지냈다.
① 慄毒 ② 圃師 ③ 鞭笞 ④ 發靱
31. 굿과 작두 타기는 []의 한 모습이다.
① 巫覡 ② 悖戾 ③ 掌拒 ④ 忖度
32.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업주들이 잇따라 []을/를 맞았다.
① 緻密 ② 鐵槌 ③ 親鞫 ④ 總攬
33. 남태평양에서 고기를 잡던 원양 어선이 파도에 휩쓸려 표류하다 []되었다.
① 槍鋌 ② 坐礁 ③ 僭越 ④ 搾油

34. 안중근은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하였다.
 ① 着枷 ② 甑餅 ③ 罪辜 ④ 狙擊

※ 주어진 뜻에 알맞은 한자어는?

35. 필요한 것이 없거나 모자라서 딱하고 웅색함.
 ① 壅拙 ② 梗塞 ③ 窘塞 ④ 臆測
36. 자나 깨나 책만 읽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① 泮蛙 ② 漚湜 ③ 塶塔 ④ 澥物
37. 비나 이슬에 젖어서 불음.
 ① 沮害 ② 佇立 ③ 粧潢 ④ 霑潤
38. 새나 짐승을 그린 그림.
 ① 翟衣 ② 翎毛 ③ 餘瀝 ④ 簪筆
39. 마른 기침.
 ① 棧雲 ② 棗盛 ③ 乾嗽 ④ 綽楔
40. 과거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상의 공덕에 의하여 맡은 벼슬.
 ① 蔭官 ② 赭面 ③ 茵陳 ④ 引鋸
41. 은혜가 매우 넓고 두터움.
 ① 優渥 ② 蕙苴 ③ 慙疹 ④ 柳絮

※ []안의 한자성어의 속뜻으로 알맞은 것은?

42. [髀肉之嘆]
 ① 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 하는 탄식.
 ② 재능을 발휘할 때를 얻지 못하여 헛되이 세월만 보내는 것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
 ③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못함에 대한 한탄.
 ④ 넉넉하지 못한 데 대한 한탄.
43. [十寒一曝]
 ① 여러 사람이 조금씩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을 돕기 쉬움.
 ② 둔하고 재능이 모자라는 사람도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음.
 ③ 일이 꾸준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중간에 자주 끊김.
 ④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음.

44. [黍離之歎]
 ① 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여서 한 갈래의 진리도 얻기 어려움.
 ② 어떤 일에 자기 자신의 힘이 미치지 못할 때에 하는 탄식.
 ③ 길이 어긋나서 서로 만나지 못하여 탄식함을 이르는 말.
 ④ 세상의 영고성쇠가 무상함을 탄식하며 이르는 말.

45. [氷肌玉骨]
 ① 말막음을 위하여 핑계로 내세움.
 ② 잔뼈가 굵어져 완성된다는 뜻으로, 어른이 됨을 이르는 말.
 ③ 매화의 곱고 깨끗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이성의 사랑을 잃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三百篇者 皆忠臣孝子烈婦良友 惻怛忠厚之發 不愛君憂國 非詩也 不[㉠]傷時憤俗 非詩也 非有美[㉡]刺勸懲之義 非詩也 故 志不立 學不醇 不聞大道 不能有致[㉢]澤民之心者 不能[㉣]詩 汝其勉之 -중략- 全不用事 吟風詠月 譚棋說酒 苟能押韻者 此三家村裏村夫子之詩也 此後所[㉤]須以用事爲主 我邦之人 動用中國之[㉥]亦是陋品
 <與猶堂全書>

46. 다음 밑줄 친 한자의 뜻이 ㉠과 같은 것은?
 ① 傷處 ② 火傷 ③ 凍傷 ④ 哀傷
47. 다음 밑줄 친 한자의 뜻이 ㉡과 같은 것은?
 ① 刺殺 ② 刺繡 ③ 諷刺 ④ 自刺
48. 문맥상 ㉢에 들어갈 漢字로 알맞은 것은?
 ① 國 ② 君 ③ 忠 ④ 美
49. 문맥상 ㉣에 공통으로 들어갈 漢字로 알맞은 것은?
 ① 評 ② 學 ③ 作 ④ 感
50. 문맥상 ㉤에 들어갈 漢字로 알맞은 것은?
 ① 事 ② 詩 ③ 韻 ④ 譚

주관식 I (주1~주100번)

■ [주관식 I]의 답은 [OCR답안지] 주관식 답안란에 검정색 펜으로 작성하시오.

※ 한자의 훈과 음을 쓰시오.

- 주1. 諡 ()
- 주2. 澁 ()
- 주3. 簞 ()
- 주4. 喔 ()
- 주5. 攀 ()
- 주6. 聃 ()
- 주7. 跣 ()
- 주8. 兀 ()
- 주9. 褰 ()
- 주10. 繇 ()
- 주11. 賚 ()
- 주12. 碌 ()
- 주13. 礪 ()
- 주14. 吻 ()
- 주15. 蟋 ()
- 주16. 媠 ()
- 주17. 耨 ()
- 주18. 燧 ()
- 주19. 穢 ()
- 주20. 鍔 ()
- 주21. 蓐 ()
- 주22. 齷 ()

※ 한자의 부수를 漢字(正字)로 쓰시오.

- 주23. 纛 ()
- 주24. 嵐 ()
- 주25. 勒 ()
- 주26. 胥 ()

※ 훈과 음에 맞는 漢字(正字)를 쓰시오.

- 주27. 상투 계 ()
- 주28. 삼살개 방 ()
- 주29. 방울 란 ()
- 주30. 게 해 ()
- 주31. 끌어모을 루 ()

- 주32. 눈떨떨내릴 비 ()
- 주33. 말갈기 령 ()
- 주34. 버선 말 ()
- 주35. 참서 참 ()
- 주36. 줌 두 ()

※ ○에 공통으로 들어갈 漢字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筮 衫 斑 蝟 淘 飭 箭 霍
------	-----------------

- 주37. 暗○ ○形 柳葉○ ()
- 주38. ○點 ○白 ○衣 ()
- 주39. ○竹 卜○ ○書 ()
- 주40. 戒○ 禁○ 申○ ()

※ 다음 한자어의 독음을 쓰시오.

- 주41. 喧譁 ()
- 주42. 孔竅 ()
- 주43. 薄曇 ()
- 주44. 唐椒 ()
- 주45. 分蘖 ()
- 주46. 深邃 ()
- 주47. 沆瀣 ()
- 주48. 肄武 ()
- 주49. 頓然 ()
- 주50. 崔嵬 ()
- 주51. 惆悵 ()
- 주52. 轡銜 ()
- 주53. 蠡測 ()
- 주54. 闖肆 ()
- 주55. 迤衍 ()
- 주56. 顛蒙 ()

※ []안 단어를 문맥에 맞게 漢字로 쓰시오.

- 주57. 겨울철 원기 회복엔 가자미[식해]가 제일 이지. ()
- 주58. 할머니께서는 송편과 함께 열음을 동동 띄운 [식해] 한 사발을 내오셨다. ()
- 주59. 궁지에 몰린 그는 마침내 [비장]의 무기를 꺼냈다. ()
- 주60. 그녀의 표정은 마치 결전을 앞둔 용사처럼 [비장]해 보였다. ()

※ 문장에서 잘못 쓴 漢字를 바르게 고쳐 쓰시오. (단, 음이 같은 한자로 고칠 것)

주61. 내 故鄉에는 螺剪 漆器 工藝 技術을 研磨하는 수련장이 있어 親舊들은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었다.

(→)

주62. 그들의 政策 方向은 現 狀況과는 壞離되고 虛荒된 妄想에 不過하다.

(→)

주63. 빈집 털이는 그동안 가스 配管이나 化粧室 등을 통해 侵入이 쉬운 多世宅住宅이 主 犯行 對象이었다.

(→)

주64. 式順에 따라 다음은 愛國歌 諸唱이 있습니다.

(→)

주65. 그 作家는 지금 猥洩과 藝術의 論爭에 휩싸여 있다.

(→)

※ 풀이에 맞게 []안의 단어를 漢字(正字)로 쓰시오.

주66. [불수강]: 크로뮴과 탄소 외에 용도에 따라 니켈, 텅스텐, 바나듐, 구리, 규소 따위의 원소를 함유한 내식성 강철. 녹이 슬지 않고 약품에도 부식하지 않는다.

()

주67. [질타]: 큰 소리로 꾸짖음.

()

주68. [포핍]: 옹고 그림이나 선하고 악함을 판단하여 결정함.

()

주69. [관홍뇌락]: 마음이 넓고 너그러워 사소한 일에 거리끼지 아니함.

()

주70. [효후]: 사나운 짐승 따위가 으르렁거림.

()

주71. [예궐]: 대궐 안으로 들어감.

()

주72. [첼객]: 처가의 관점에서 사위를 이르는 말.

()

주73. [항려]: 남편과 아내로 이루어진 짝.

()

주74. [조타륜]: 손잡이가 달린 바퀴 모양의 장치. 배의 키를 움직이는 데 쓴다.

()

주75. [전별금]: 보내는 쪽에서 예를 차려 작별할 때에 떠나는 사람을 위로하는 뜻에서 주는 돈.

()

※ 문장 속 []안의 단어를 漢字(正字)로 쓰시오.

주76. 사업 실패로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렀지만 이런 어둠 속에서도 그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

주77. 제비나 참새가 어찌 [홍곡]의 뜻을 알 수 있는가.

()

주78. 물이 끓자 [주전자]의 뚜껑이 저절로 들썩거렸다.

()

주79. 어제는 진달래가 만발한 가운데 봄눈이 흩날리는 [희한]한 날씨였다.

()

주80. 자세를 교정하려면 [척추]를 반듯이 펴고 앉아야 한다.

()

주81. 물리학에서는 양극과 음극의 [대척] 현상을 여러 가지로 이용하고 있다.

()

주82. 철수는 슬기에게 바람맞고 [의기소침]해져서 집으로 돌아왔다.

()

주83. 그 사람과는 오래 [격조]하여 연락처도 알지 못한다.

()

주84. 그 전장에는 [초연]냄새가 그냥 남아 있는 노란 탄피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

주85. 그들은 소극적이고 [퇴영적]인 성격의 사람들이다.

()

주86. 정부는 '노인의 날'인 매년 10월 2일에 100세가 되는 장수 노인에게 [청려장]을 지급하고 있다.

()

주87. 남강 [고수부지]에서는 정월 대보름 달맞이 행사가 열렸다.

()

주88. [울적]한 마음을 달래려고 공원에서 산보했다.

()

주89. 그는 밤무대에서 [나팔]을 연주하며 생계를 꾸려 나간다.

()

주90. 고려·조선 시대에, 하지가 지나도록 비가 오지 않을 때 비 오기를 바라며 [무우제]를 행했다.

()

※ [] 안의 한자성어의 뜻을 읽고 ○ 안에 들어갈 알맞은 漢字(正字)를 쓰시오.

- 주91. [○革之屍] 전쟁에서 싸우다 죽은 사람의 시체를 이르는 말. ()
- 주92. [輻輳并○] 한곳으로 많이 몰려듦을 이르는 말. ()
- 주93. [奇○秀峯] 기이하고 경치가 빼어난 산봉우리. ()
- 주94. [肉○負荊] 형장을 지고 사죄하겠다는 뜻을 나타냄을 이르는 말. ()
- 주95. [怒○拔劍] 사소한 일에 화를 내거나 또는 작은 일에 어울리지 않게 커다란 대책을 세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주96. [○禍求福]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구함. ()
- 주97. [得魚忘○] 바라던 바를 이루고 나면 이를 이루기 위하여 했던 일들을 잊어버림을 이르는 말. ()
- 주98. [苟安○生] 일시적인 안락을 탐하여 헛되이 살아감. ()
- 주99. [光風○月] 마음이 넓고 쾌활하여 아무 거리낌이 없는 인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주100. [苦心慘○] 몹시 마음을 태우며 애를 쓰면서 걱정을 함. ()

주관식 II (주101~주150번)

■ [주관식III]의 답은 별도의 [주관식 II 답안지]에 검정색 펜으로 작성하시오.

※ [] 안의 한자성어 활용이 적절하면 ‘O’, 적절하지 않으면 ‘X’로 표기하시오.

- 주101. 드디어 왕이 친히 군마를 이끌고 나타나자 [鼓角喊聲]이 천지를 진동하였다. ()
- 주102. 왕은 개신장군을 [極邊遠竄]하여 그의 공을 만천하에 알렸다. ()
- 주103. 병원 영안실 입구에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유가족들의 [呱呱之聲]이 들려왔다. ()

- 주104. 아무리 어려운 질문에도 [應口輒對]하는 소년을 보고 모두들 신동이라며 신기하게 생각했다. ()

※ [] 안의 문장의 뜻에 부합하는 사자성어를 漢字(正字)로 쓰시오.

- 주105. 글을 많이 쓰더라도 [전혀 쓸모없는 소의 오줌이나 말똥] 같은 글을 쓰면 안 쓰는 것만 못하다. ()
- 주106. 사건의 전후 맥락을 모르는 내게 [머리 와 꼬리를 잘라 버리고] 중간만 이야기 하니 통 이해할 수가 없었다. ()
- 주107. [주사위를 한 번 던져 승패를 결정하는] 일대 결전이 각일각 다가오고 있었다. ()
- 주108. 지금 그 약은 나에게 [대나무 조각과 나무 부스러기]처럼 소용이 없다. ()

※ 성어의 속뜻을 쓰시오.

- 주109. 縞衣玄裳 ()
- 주110. 龍蟠虎踞 ()
- 주111. 三年不蜚 ()
- 주112. 死不瞑目 ()

※ 다음 문장에 해당하는 우리말 속담을 쓰시오.

- 주113. 蔬之將善 兩葉可辨 ()
- 주114. 來語不美 去語何美 ()
- 주115. 橫步行好去京 ()
- 주116. 予所憎兒 先抱之懷 ()

※ 문장의 ○ 안에 들어갈 漢字를 <보기>에서 찾아 차례대로 쓰시오.

<보기> 則而唯無已也於且諸以之與焉

- 주117. 鳥○將死 其鳴○哀 () 《論語》
- 주118. 子曰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格 () 《論語》
- 주119. 少○ 月出○東山之上 () 《古文眞寶》
- 주120. 道千乘之國 敬事而信 節用○愛人 使民○時 () 《論語》

※ 문장의 ○ 안에 들어갈 漢字를 <보기>에서 찾아 차례대로 쓰시오.

<보기> 好察待李延聞端避納見愆梨顯

- 주121. 瓜田不○履 ○下不整冠 () 《文選》
- 주122. 君子之道 造○乎夫婦 及其至也 ○乎天地 () 《中庸》
- 주123. 勿謂今日不學而有來日 勿謂今年不學而有來年 日月逝矣 歲不我○ 嗚呼老矣 是誰之○ () 《古文眞寶》
- 주124. ○善如渴 ○惡如聾 () 《明心寶鑑》

※ 주어진 국역을 참고하여 [] 안의 漢字들을 알맞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 주125. 猫項 [懸耶我爲誰能鈴] () 《古今笑叢》
국역: 고양이 목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방울을 달겠느냐.
- 주126. [之玉守滿莫堂能金] 富貴而驕 自遺其咎 () 《老子》
국역: 금과 옥이 집에 가득하면 그것을 지킬 수 없고, 부귀하여 교만하면 스스로 화를 초래할 것이다.
- 주127. [錯直直諸者枉枉使能舉] () 《論語》
국역: 정직한 사람을 들어 쓰고 모든 부정한 사람을 버리면 부정한 자로 하여금 곧게 할 수 있다.
- 주128. [所亦人人爲者憎憎好] () 《說苑》
국역: 남을 미워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역시 남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 [] 부분을 국역하시오.

- 주129. 倚南窓以寄傲 [審容膝之易安] () 《古文眞寶》
- 주130. [其聞道也 固先乎吾] 吾從而師之 () 《古文眞寶》
- 주131. 善始者實繁 [克終者蓋寡] () 《貞觀政要》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絕句> - 杜甫
江碧鳥逾白
①山青花欲然
今春看又過
何日是歸年
- (나) <㉠訪金居士野居> - 鄭道傳
秋陰㉡막막四山空
落葉無聲滿地紅
立馬溪橋問歸路
不知身在畫圖中
- (다) <飲酒> - 陶淵明
結廬在人境 而無車馬喧
問君何能爾 心遠地自偏
③채국동리하 悠然見南山
山氣日夕佳 飛鳥相與還
此間有眞意 ④欲辨已忘言

- 주132. ㉠을 국역하시오. ()
- 주133. ㉡을 국역하시오. ()
- 주134. ㉢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 주135. (나)의 형식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 주136. ㉣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 주137. ㉤을 국역하시오. ()
- 주138. (다)의 주제를 쓰시오. ()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昔에 有桓因庶子桓雄이 數意天下하여 貪求人世어늘 父知子意하고 下視三危太伯하니 可以弘益人間이라 乃授㉠천부인 三個하여 ㉡遣往理之하다 雄이 率徒三千하여 降於太伯山頂神檀樹下하니 謂之神市오 是謂桓雄天王也라 ㉢將風伯雨師雲師하여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하여 在世理化라 時有一熊一虎하여 同穴而居하니 常祈于神雄하여 願化爲人이라 時神遺靈艾一炷 蒜二十枚曰 爾輩食之하고 不見日光百日하면 便得人形하리라하니 熊虎得而食之 忌三七日에 熊得女身이러니 虎不能忌하여 而不得人身이라 熊女者無與爲婚이라 故每於壇樹下하여 呪願有孕러니 ㉣乃假化而婚之하여 孕生하니 號曰㉤단군왕검이라

《㉢삼국유사》

- 주139. ㉠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 주140. ㉡을 국역하십시오.
()
- 주141. ㉢과 같은 뜻으로 쓰인 漢字를 윗글에서 찾아 그 漢字의 ‘훈과 음’을 쓰시오.
()
- 주142. ㉣에 들어갈 漢字를 윗글에서 찾아 漢字(正字)로 쓰시오. ()
- 주143. ㉤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 주144. ㉥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臣本布衣로 躬耕南陽하여 苟全性命於亂世하고 不求聞達於諸侯러니 先帝不以臣㉡卑鄙하시고 猥自枉屈하사 三顧臣於草廬之中하시고 咨臣以當世之事하시니 由是感激하여 遂許先帝以驅馳러니 後㉢值傾覆하여 受任於敗軍之際하고 奉命於危難之間이 爾來二十有一年矣니이다 先帝知臣謹慎이라 故로 臨崩에 寄臣以大事也하시니 受命以來로 夙夜憂嘆하여 恐託付不効하여 以傷先帝之明이라 故로 五月渡瀘하여 深入不毛러니 今南方已定하고 兵甲已足하니 當獎率三軍하고 ㉣北定中原하여 庶竭駑鈍하여 攘除姦兇하고 興復漢室하여 還于舊都가 此臣所以報先帝而㉤忠陛下之職分也니이다

《古文眞寶》

- 주145. ㉠을 국역하십시오.
()
- 주146. ㉡의 독음을 쓰시오.()
- 주147. 문맥에 맞게 ㉢의 ‘훈과 음’을 쓰시오.
()
- 주148. ㉣을 국역하십시오.
()
- 주149. ㉤을 국역하십시오.
()
- 주150. 윗글의 제목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 수고하셨습니다 -

합격자 발표: 2021. 3. 18. (목)

결 과 조 회: 홈페이지 (www.hanja114.org) 접속
(성명, 생년월일, 수험번호 필수 기재)

제103회 한자자격시험 사범급 모범답안 (1)

■ 객관식 ■

1	④	6	②	11	④	16	①	21	②	26	④	31	①	36	①	41	①	46	④
2	①	7	①	12	③	17	④	22	③	27	②	32	②	37	④	42	②	47	③
3	③	8	④	13	①	18	③	23	②	28	③	33	②	38	②	43	③	48	②
4	②	9	②	14	④	19	③	24	④	29	①	34	④	39	③	44	④	49	③
5	②	10	③	15	①	20	③	25	①	30	④	35	③	40	①	45	③	50	①

■ 주관식 I ■

주1	시호 시	주21	순채 순	주41	흰화	주61	剪→鈿	주81	對蹠
주2	뺨을 삼	주22	깨물 간	주42	공규	주62	壞→乖	주82	意氣銷沈
주3	삼태기 궤	주23	糸	주43	박담	주63	垚→帶	주83	隔阻
주4	닭소리 악	주24	山	주44	당초	주64	諸→齊	주84	硝煙
주5	더위잡을 반	주25	力	주45	분얼	주65	洩→褻	주85	退嬰的
주6	귀바퀴없을 담	주26	肉	주46	심수	주66	不銹鋼	주86	青藜杖
주7	맨발 선	주27	髻	주47	항해	주67	叱咤	주87	高水敷地
주8	우뚱할 울	주28	龙	주48	이무	주68	褒貶	주88	鬱寂
주9	옷걸이를 건	주29	鑿	주49	적연	주69	寬弘磊落	주89	喇叭
주10	역사 요	주30	蟹	주50	최외	주70	哮吼	주90	舞雩祭
주11	집어줄 재	주31	摟	주51	추창	주71	詣闕	주91	裹
주12	돌모양 록	주32	霏	주52	비함	주72	贅客	주92	臻
주13	비상섞인돌 여	주33	蠶	주53	여측	주73	伉儷	주93	巒
주14	입술 문	주34	襪	주54	틈사	주74	操舵輪	주94	袒
주15	귀뚜라미 실	주35	讖	주55	이연	주75	餞別金	주95	蠅
주16	화할 인	주36	蠹	주56	전몽	주76	破綻	주96	襪
주17	김멜/없앨 누	주37	箭	주57	食醢	주77	鴻鵠	주97	筌
주18	부싷돌 수	주38	斑	주58	食醢	주78	酒煎子	주98	偷
주19	서직무성할 육	주39	筮	주59	祕藏	주79	稀罕	주99	霽
주20	칼날 악	주40	飭	주60	悲壯	주80	脊椎	주100	愴

제103회 한자자격시험 사범급 모범답안 (2)

▣ 주관식 II ▣

주101	○	주118	而，且	주135	七言絕句
주102	X	주119	焉，於	주136	採菊東籬下
주103	X	주120	而，以	주137	말로 표현하려 해도 이미 할 말을 잊었네
주104	○	주121	納，李	주138	전원생활(의 즐거움)
주105	牛溲馬勃	주122	端，察	주139	天符印
주106	去頭截尾	주123	延，愆	주140	가서 이를 다스리게 하였다
주107	乾坤一擲	주124	見，聞	주141	거느릴 술
주108	竹頭木屑	주125	誰能爲我懸鈴耶	주142	雄
주109	두루미(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	주126	金玉滿堂 莫之能守	주143	檀君王儉
주110	(용이 서리고 범이 웅크린 듯한) 웅장한 산세	주127	舉直錯諸枉 能使枉者直	주144	三國遺事
주111	훗날 응비할 기회를 기다림	주128	好憎人者 亦爲人所憎	주145	신은 본래 평민으로서 몸소 남양 땅에서 농사지어
주112	근심이나 한이 남아 있어 (죽어서도 눈을 편히 감지 못함.)	주129	무릎을 용납할 만한 곳이 편안하기 쉽다. (쉬움을 알았다.)	주146	비비
주113	떨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주130	그가 도를 들은 것이 진실로 나보다 먼저라면	주147	만날 치
주114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주131	마침을 잘하는 자는 대개 적다.	주148	북쪽으로 중원을 평정(정벌)해야 합니다
주115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주132	산이 푸르니 꽃은 불붙는 (불타는) 듯하네	주149	폐하에게 충성하는 직분입니다
주116	미운 아이 먼저 품어라	주133	김거사의 시골집을 방문하다	주150	出師表
주117	之，也	주134	漠漠		